

 인천광역시	<h2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2>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7월 5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담당자	• 강화방역지원과장 양하영 ☎440-8291 • 담당자 황원무 ☎440-8292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여름철 폭염에 가축 피해 대비 당부**  
**-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농가에 고온기 축사환경 관리요령 홍보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름철 혹서기를 맞아 축산농가의 하절기 사양관리와 축산환경관리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 대사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번식장애, 질병발생증가 등 피해가 발생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므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고온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소의 사육적온은 송아지 13~25℃, 육성우 및 번식우는 4~20℃, 비육우는 10~20℃로 송아지와 비육우의 고온스트레스가 비교적 큰 편이다.

특히 비육우는 25℃ 이상 올라가면 체온이 상승해 사료 섭취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며, 30℃ 이상이 되면 발육이 정지되므로 비육 중기 이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온으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에 대비해 자가 배합사료의 경우, 기호성이

높은 당밀 첨가량을 높이고, 각 제품의 영양소 함량을 상향 조정해 사료는 새벽이나 저녁에, 조사료는 저녁에 급여한다.

신선한 사료 급여를 위해 10일 이내 급여할 만큼만 구입하고, 급여 사료의 부패에 대비해 사료조 청소를 자주 실시한다.

25℃ 이상의 환경에서는 물 섭취량 증가가 두드러지므로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며, 급수조안에 이끼가 끼거나 떨어진 사료가 부패할 수 있으므로 자주 점검해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축사 지붕에는 차광막을 씌우고, 대형선풍기나, 송풍팬을 이용해 가축의 체감온도를 낮춰 준다. 특히 송풍팬은 축사 안의 과도한 열, 수분, 분진, 암모니아, 메탄 등의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돼지는 땀샘이 발달해 있지 않고 두꺼운 지방층으로 인해 타 가축에 비해 여름철 기후에 취약하다.

돈사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단열 관리와 환기시설이다. 환기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붕 단열을 보완하면 여름철 더위 차단에 효과적이다. 단열재가 부족한 경우 지붕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물을 뿌려주는 것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모든의 경우 에너지와 아미노산이 보강된 사료를 공급해 생산성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며, 추가적으로 비타민C와 E, 광물질 등을 공급하면 고온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닭은 높은 대사율과 체온의 변화가 많은 가축으로 체온조절이 어려워 고온에 특히 취약하다.

계사의 온도상승은 닭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닭의 고온스트레스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은 계사 내에 바람을 일으켜 풍속을 높여주는 것이다.

육계는 고온 시 비타민C와 냉각수를 급여하고, 폭염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1~21일령에는 일반 전기사료를 급여하고, 후기(22~출하 시)에는 일반후기사료 + 대두유5%(우지5% 대체) + 당밀2%(옥수수2%대체)+ 메치오닌0.45%+ 라이신0.45%+비타민C 200ppm 첨가 급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주호 인천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 고온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차광막을 씌우고, 대형선풍기나, 송풍팬을 적극 이용해 체감온도를 낮추는게 중요하다” 며 “섭취량 저하에 대비해 기호성 높은 사료의 영양소 함량을 상향 조정해 급여하고, 급수조를 자주 점검해 청결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 말했다.

<붙임> 축사 사진

